

작년 5183만명 역대 최대...세종시 30만명 첫 돌파

[주민등록인구]

행정안전부, 2018년 주민등록인구 통계 발표 증가폭은 매년 둔화...작년 0.1% '사상 최저' 女,男보다 9.4만명 많아...경기 1년새 20만명 ↑

지난해 우리나라의 주민등록 인구가 5183만명으로 통계 집계 이래 가장 많았다. 그러나 증가폭은 매년 둔화에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집값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경기 지역 인구가 1년 사이 20만명 넘게 늘었고, 세종시 인구는 사상 처음 30만명을 돌파했다.

행정안전부가 14일 내놓은 '주민등록인구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5182만6059명으로 1년 전(5177만8544명)보다 4만7515명(0.09%) 늘었다.

전체 주민등록인구 수는 지난 2008년 통계청에서 행안부로 관련 통계가 이관돼 작성·공표된 이래 가장 많다.

하지만 증가율은 매년 둔화에 역대 가장 낮았던 2017년(0.16%)보다도 더 낮았다.

주민등록인구 중 거주자는 5132만5445명(99.03%)이었다.

거주지를 신고하지 않았거나 해외에 장기 체류해 거주불명자로 등록된 인구는 43만8336명(0.84%), 재외국민은 6만7278명(0.13%)이다.

성별로는 여자가 2595만9930명(50.1%)으로 남자(2586만6129명·49.9%)보다 9만3801명이 더 많았다.

주민등록 세대수는 2204만2947세대로 1년 전(2163만2851세대)보다 41만966세대(1.9%) 증가했다. 세대당 평균 인구는 2.35명이었다.

지역별로는 지난 1년간 경기 인구가 20만3258명 늘어난 1307만7153명으로 집계됐다.

2만2579명이 늘어 전년 대비 인구증가율 5위를 기록한 인천 서구를 제외한 1~8위 모두 경기 지역이었다.

경기 화성이 6만7638명 늘어 전국 시·군·구에서 인구가 가장 많이 증가한 것으로 기록됐다. 뒤이어 김포(3만1078명), 용인(3만

1045명), 시흥(2만1902명), 하남(2만1928명), 광주(1만7835명), 남양주(1만6507명) 순이었다.

전년 대비 주민등록인구가 늘어난 시·군·구는 총 63곳이다.

반면 경기 안산이 가장 많은 1만7367명이 빠져 나갔다. 인천 부평(-1만5301명), 서울 강남(-1만3800명), 경기 성남(-1만3163명), 인천 계양(-1만1104명), 경기 안양(-1만993명) 등을 포함한 163개 지역 인구는 감소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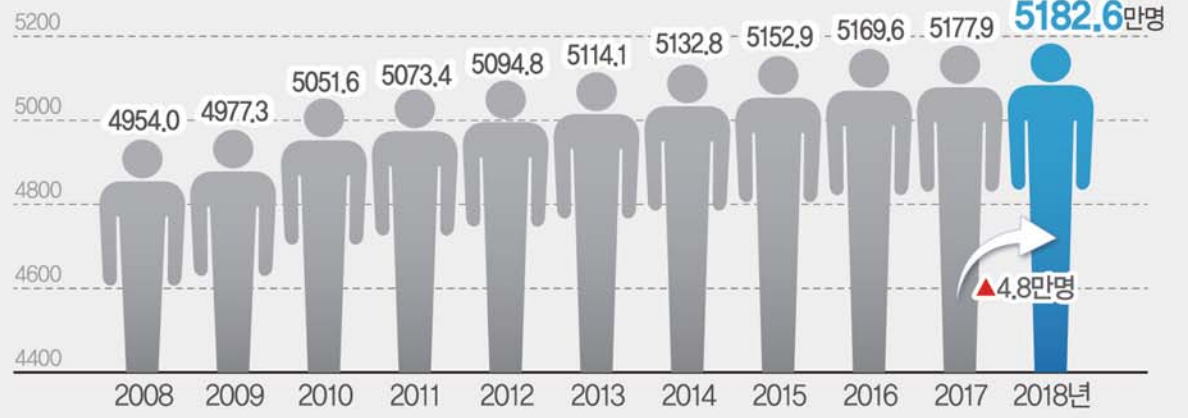
세종시(31만126명)는 지난 1년간 인구 3만4028명 늘면서 사상 처음 30만명을 돌파했다. 제주도 1만108명 늘어난 66만7191명을 기록했다.

충남(9512명), 인천(6100명), 충북(4820명) 3개 시·도의 인구는 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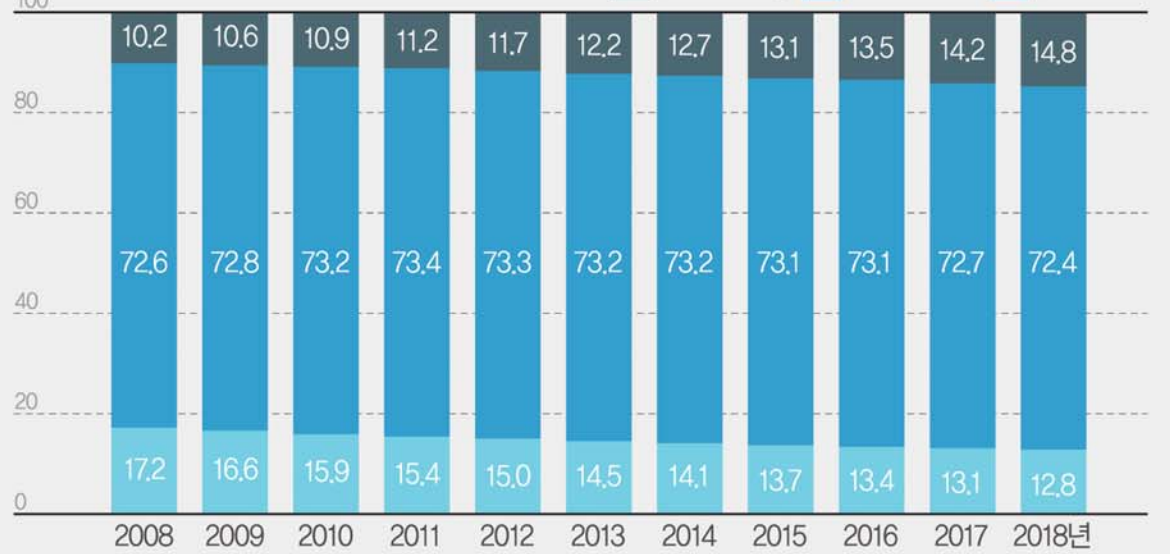
반면 서울(-9만803명), 부산(-2만920명), 전북(-1만775명), 경북(-1만4875명), 대구(-1만3462명), 전남(-1만8454명) 등 11개 시도는 감소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2017년보다 인구가 증가한 지역 중 경기, 세종, 제주 3곳은 자연적 인구 증가와 타 시도로부터 순유입이 많았다"며 "인구가 줄어든 서울·대구·대전·울산·광주는 자연적 인구 증가에도 타 시도로의 순유출이 많았고 부산·전북·경북·전남·강원·경남은 자연적 인구 감소와 함께 타 시도로의 순유출도 많았다"고 전했다.

주민등록 인구 현황 (단위: 만명)



연령계층별 분포 (단위: %)



전년 대비 시군구 증감 (단위: 만명) 2018년 기준

증가가 많은 시군구 상위5위



감소가 많은 시군구 상위5위



자료: 행정안전부

로 관련 통계가 이관돼 공표된 이래 0~14세 비율은 매년 감소했지만 65세 이상 비율은 증가했다.

2016년에는 65세 이상 비율(13.5%)이 0~14세 비율(13.4%)을

초을 추월한 뒤 2017년 그 격차가 1.1%포인트 벌어졌지만, 지난해에는 2.0%포인트 더 커졌다.

행안부 관계자는 "고령화로 인해 전체 인구는 줄지만 출산

을 가장 많이 하는 30~34세 여성의 인구와 혼인 감소로 출생이 줄면서 노인과 아동의 인구 비율이 2016년 역전된 후 그 격차가 계속 벌어지는 추세"라고 전했다.

심화하는 고령화...노인·아동 인구격차 최대



지난해 노인과 아동 인구 비율의 격차가 역대 최대로 벌어져 고령사회가 심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가 14일 내놓은 '주민등록인구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주민등록 인구 수는 5182만6059명이다.

이 중 50대가 861만5884명

(16.6%)으로 가장 많았다. 1년 전보다는 12만5680명 늘었다.

뒤이어 40대 848만 8587명(16.4%), 30대 727만143명(14.0%), 20대 682만3973명(13.2%), 60대 594만9639명(11.5%), 70대 이상 524만8618명(10.1%) 순이었다.

10대는 513만153명(9.9%), 10대 미만은 43만3062명(8.3%)으로 인구 비율이 10%가 채 안됐다.

0~14세 인구(662만8610명)는 전체 12.8%로 1년 전보다 0.3%포인트(15만7355명), 15~64세 인구(3754만7041명)도 전체 72.4%로 0.3%포인트(8만9432명) 각각 줄어 들었다.

반면 65세 이상 노인 인구(765만 408명)는 전체 14.8%로 1년 전보다 0.6%포인트(29만4302명) 증가했다.

지난 2008년 통계청에서 행안부

노인 비율 14.8%...아동 12.8%과 격차 2%P
65세 이상이 0~14세보다 102만명 더 많아

부풀리고 조작된 가짜뉴스는 사라져야 합니다



가짜뉴스가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자극적이거나 의심스러운 뉴스는
공신력있는 기관을 통해 한번 더 검증해보는 현명함으로
가짜뉴스를 근절시켜 정직하고 바른사회를 만들어 갑시다.